



〈미스터 션샤인〉, 역사의 소환과 재현방식*

주창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역사드라마에서 흥미로운 영역 중의 하나는 작가가 역사적 상상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부터 특정 사건들을 선택하고 재배열하며, 개연적이거나 허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이것은 역사드라마의 역사의 소환과 재현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역사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역사를 소환하는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다. 〈미스터 션샤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소환해서 재현했다. 역사의 전경화(前景化) 전략은 증거로서 역사를 재현하고 특정 장소를 의미화하는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나 정미년 남대문 전투 등을 당시의 증언, 사진,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사성을 높이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역사 속으로 몰입시킨다. 역사의 중경화(中景化) 전략은 역사기표들 중에서 선택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드라마의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허구적 상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고종의 예치증서, 밀지, 제국익문사 등의 역사기표들은 허구적 인물, 실존 인물, 개연적 인물들과 결합되어 서사의 중심을 이끌어간다. 역사의 배경화(背景化) 전략은 역사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면서 재배열하는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1902년~1907년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1870년대부터 1930년대에 나타나는 풍물, 유행, 문화 등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이것은 서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서사 뒤에서 이야기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스터 션샤인〉은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낭만적 사랑의 좌절을 세 가지 층위(동지적 사랑, 절대적 사랑, 배려적 사랑)에서 그려냈다. 이것들이 시청자를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사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역사드라마, 역사소환, 〈미스터 션샤인〉, 역사의 전경화, 역사의 배경화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joo@swu.ac.kr

1. 문제의 제기

역사드라마는 ‘기술(記述)된 상상의 역사’다. 작가는 사실(事實)로서의 역사와 역사가가 구성해 놓은 사건들 중에서 공존 가능한 것들을 재구성한다. 역사가의 역할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수집해 짜 맞추어 사라진 것들을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있다면, 작가의 역할은 구성된 역사의 흔적들(사건과 인물 등)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서 상상적으로 역사적 허구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작가가 특정 역사사건, 흔적, 인물들을 선별하고 꾸며내는 것은 늘 논쟁을 야기한다. 논쟁은 역사가와 작가, 그리고 작가(작품)와 대중(수용) 사이에서 발생한다. 2018년 인기를 끈 역사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김은숙 극본, 이응복 연출)도 예외는 아니다. 한 역사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미양요(1871) 이전 미국인은 조선 땅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며(노컷 뉴스, 2018, 7, 11), 미해병대 대위가 공사대리로 근무한다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구한말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형익, 2018).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같은 역사왜곡 드라마/영화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2018년 7월 16일 청원, 8월 15일 마감)라는 글이 올라왔고, 28,481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인기 역사드라마가 방영될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되어 왔다.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드라마의 논점은 사실의 고증이나 역사왜곡에 있기보다 작가가 어떤 역사의 파편들을 끄집어내어 시대를 재구성하는가에 있다. 드라마로서 ‘기술된 상상의 역사’는 사료들로부터 취선(取選)된 사건들을 재배열하고, 개연적이거나 허구적인 사건을 계열화한다. 이것은 역사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영역이 역사의 소환과 재현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환은 작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재배열되는 사건과 인물이라면, 재현은 드라마의 시공간 속에서 역사가 표현되는 방식이다. 역사의 소환과 재현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사건의 행위자인 인물을 통해서 표현된다. 인물들은 재배열된 역사적, 허구적 맥락 속에서 시대의식을 내면화하고, 대중은 그것을 통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 글의 목적은 <미스터 션샤인>이 어떻게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소환하고, 사건(역사적 사건과 허구적 사건)들을 재배열하며, 역사의 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글은 네 가지 문제를 탐구할 것이다. 첫째, 역사장르에서 역사소환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미스터 션샤인>에서 사료나 증거, 그리고 역사기표가 소환되는 방식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인물들(허구적 인물, 개연적 인물, 실존 인물)이 서사를 위해서 배치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넷째, 역사소환 전략이 어떻게 낭만적 사랑의 좌절과 연결되어 서사적 즐거움을 만

들어내는지 논의할 것이다.

2. 역사장르의 역사소환

역사장르 — 역사영화, 역사소설, 역사드라마 등 —는 역사가학이 대상으로 삼는 기록과 편린들을 가지고 작가의 상상력을 매개로 구성된다. 역사장르는 근본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역사장르의 본질에 대한 핵심논의가 국내 역사드라마 연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¹⁾

일부 진행된 논의들은 대체로 ‘역사성’과 ‘허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서 역사소환 문제를 다룬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드라마에서 고증의 문제나 역사왜곡을 지적한다(김경동, 2001; 김용만, 2007; 서길수, 2007; 이덕일, 2001). 서길수(2007)는 <주몽>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는지를 밝힌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관계설정 오류(주몽, 소서노, 대소의 삼각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유화부인은 주몽이 왕이 된 후 죽었다 등), 역사시간의 오류(고구려 건국 후 한참 뒤에 발생한 현도와 요동정벌 등), 시대적으로 잘못된 칭호나 지명의 오류(주몽을 황제로 호칭하거나 ‘현토’가 아니라 ‘현도’ 등)에 대해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바로잡는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의 관점은 이와 유사한데, 역사소환 자체의 오류를 지적한다. 반면 역사드라마 작가들은 드라마의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이병훈, 2000). 작가들은 역사드라마의 허구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와 작가 사이의 대립적 시각은 역사소환이 사실성이 우선인가 허구성이 우선인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의 반복이다. 이 논란이 역사드라마의 역사소환과 재현방식에 새롭거나 발전적인 함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개연성(historical probability)은 역사성과 허구성의 대립을 해소하는 개념이다. 역사적 개연성은 역사성과 허구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공임순, 2000). 역사적 개연성은 역사적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지만, 그렇다고 역사소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개연성이 지니는 모호성 때문이다. 쇼(Shaw)는 역사적 개연성을 확대해서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으로 구분한다. 외적 개연성이 역사의 사실이나 중핵을 충실히 묘사하는 것이

1) 국내에서 진행된 역사드라마 연구들은 대체로 서사구조 분석과 그것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역사소환 방식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소환된 것이 지니는 서사의 의미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회가 편집한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2014)이다.

다면, 내적 개연성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서사를 일관성있게 구성하는 것이다(Shaw, 1983, pp.20~21). 그러나 여기서도 모호한 것은 외적 개연성이 단일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자료의 소환 범위는 실증적 자료로부터 비공식적 자료, 역사의 공백들(blank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로젠스톤(Rosenstone, 1995)은 역사소환과 관련해서 역사영화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드라마로서의 역사영화'는 역사배경과 맥락이 의미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영화'는 증인이나 증거에 충실한 것이고, '실험으로서 역사영화'는 드라마로서의 역사영화와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영화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다. 로젠스톤은 영화가 역사를 소환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상상력, 증거, 역사적 상상력과 증거 사이의 결합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로젠스톤의 구분법도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역사영화들은 '드라마로서의 역사영화'에 속하고, 드라마로서의 역사영화와 실험으로서의 역사영화의 구분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함 뽀쩨킨>(1925)을 실험으로서 역사영화로 구분하는데, <전함 뽀쩨킨>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영화'로 볼 수도 있고, 역사배경과 맥락이 중요한 의미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드라마로서의 역사영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든(Grindon, 1994)은 역사가 소환되는 방식을 개인적 요소(플롯, 개인, 특정 인물의 개연성, 개인심리, 친숙한 장면, 인물설정)와 맥락적 요소(역사 공간, 사회, 집단의 모습, 집단행위, 공적 의례, 스펙터클)로 구분해서 이 관계 속에서 역사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그린든의 제안은 역사영화가 지니는 복합성을 해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역사장르의 역사소환과 재현과 관련된 문제점은 역사장르를 하나의 단일한 장르(Genre)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 역사장르가 다른 드라마 장르들(멜로드라마, 로맨틱 드라마, 경찰 드라마 등)과 구분되는 단일 장르지만, 역사드라마는 역사서술방식에 따라서 개별적 장르(genre)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주창윤(2005)은 역사드라마를 역사서술방식에 따라서 기록적 서술방식, 개연적 서술방식, 상상적 서술방식, 허구적 서술방식으로 장르관습을 구분한다. 이 구분의 유용성은 역사소환과 재현방식에 따라서 역사드라마의 하위 장르를 구분함으로써 장르관습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방영된 <개국>, <독립문>, <조선왕조 500년> 등은 정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기록적 서술방식을 취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허준>, <대장금>, <뿌리 깊은 나무>등과 같은 상상적 서술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모호한 역사배경만이 등장하는 허구적 서술방식의 역사드라마들도 등장하고 있다. <해를 품은 달>, <군주>, <백일의 낭군님>등과 같은 드라마들이 여기에 속한다.²⁾ 역사드라마의 서술방식에 따라서 하위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역사드라마의 소환과 재현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장르 구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다양한 역사자료들(공식적, 비공식적 자료, 풍속 등)이 어떻게 역사드라마 안으로 들어와서 서사적 재미를 만들어내는지 밝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에서 나타난 변화는 역사학 분야에서 미시사나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역사드라마는 정사기록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루지만 개연성과 허구성의 외연을 확장해왔다.³⁾ 윤석진(2014)은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특징으로 ‘가능성으로서 역사’와 ‘상상으로서의 이야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능성으로서 역사는 과거 사건을 다루지만 새로운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뿌리 깊은 나무〉는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을 중심 이야기로 다루면서 세종의 인간적 고뇌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상상으로서의 이야기’는 〈허준〉과 〈대장금〉등으로부터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⁴⁾

최근 몇 년 동안 역사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은 단순한 배경으로서만 등장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상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허구적 서사가 역사적 사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스터 션사인〉은 역사소환과 재현에 있어서 역사드라마의 흐름과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최근 역사드라마에 나오지 않았던 내레이션을 통해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거나 공식, 비공식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사를 두껍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미로운 작업은 〈미스터 션사인〉이 구한말 의병활동과 사랑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적 사실들을 상이하게 배치해서 서사적 즐거움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이다.

3. 역사의 전경화

〈미스터 션사인〉은 1회와 2회에 걸쳐 세 가지 역사적 사건들 —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요

2) 지난 5년 동안 기록적 역사서술 드라마는 〈임진왜란 1592〉(KBS1 2016)가 유일하고, 개연적 역사서술 드라마는 〈정비록〉(KBS1, 2015), 〈장영실〉(KBS1, 2016) 정도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상상적, 허구적 역사서술 드라마였다.

3) 2000년대 이후 언론은 이 같은 경향을 퓨전사극, 팩션사극, 픽션사극 등의 용어로 설명했다.

4)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 역사드라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루트(Groot, 2014)는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에서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대중 역사(public history)의 붐을 일으켰다. 역사는 이야기의 모음이고 대중문화가 자유롭게 빌려 쓰는 담론이 되었으며, 역사적 사실성보다 어떻게 생동감있게 그려내는가에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호 사건,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과 22회 1907년 정미년 남대문 전투를 펼쳐 보인다.

1871년 신미양요는 〈미스터 선사인〉에서 전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1871년 6월 10일 450명의 미군은 강화도 초지진에 포격을 가하면서 상륙했고, 6월 11일 덕진진을 점령한 후 가장 중요한 요새인 광성보를 공격했다. 광성보에는 어재연과 호랑이 사냥꾼이 포함된 병사 1천여 명이 있었다. 미군은 광성보 공격에 앞서 2시간 동안 포탄을 퍼부었다. 역사기록을 보면, 광성보 전투는 일방적이고 처참한 전쟁이었다. 미군은 단 3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했지만, 조선군은 광성보에서만 주요 지휘관이었던 어재연을 비롯하여 350여 명이 전사하고, 20여명이 포로로 잡혔다. 미군은 광성보를 점령한 후 조선군의 수자기(帥字旗)를 내리고 상징적으로 성조기를 게양했다(신호승, 2014, 33쪽).

〈미스터 선사인〉은 광성보 전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역사의 사실성은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 지휘관과 병사들의 기록, 종군사진사가 찍은 기록사진들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광성보 전투에 대한 증언자는 미군이였다. 드라마에서는 누구의 내레이션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전투에 참여했던 한 미군 지휘관의 증언이 소개된다.⁵⁾

적군은 참패의 와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결사 항전 중이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다. 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장군의 깃발 수자기(帥字旗)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난다. 창과 칼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1회).

신미양요 때 미군 종군사진사(펠리스 비토로 추정)는 약 50여 점의 사진을 찍었다. 외국인에 의해 이 땅에서 우리가 촬영된 최초의 사진이자 미국 측으로서도 해외에서 전투장면을 기록한 최초의 사진이었다(최인진, 1999, 431~437쪽). 비록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은 드라마에서는 배제되었지만, 광성보 전투 후 미군들의 기념사진(〈그림 1〉과 〈그림 2〉참고), 강화도 전경, 미군의 폭격으로 전사한 조선군의 참혹한 모습들은 종군사진들과 유사하게 재연되었다.

5) 내레이션은 전투에 참여했던 솔레이 대령인 듯하고, 이 진술은 당시 기록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그림1. 신미양요 사진



그림2. <미스터 선사인>신미양요 장면

“조선군 243인 전사, 100인 익사, 어재현 장군 또한 전투 중 전사하였다 하옵니다. . . 포로로 잡힌 자가 스물 남짓입니다.”

“[대원군] 포로로 잡힌 자들은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남아 그리 되었으니 비겁한 자들이다. 조선의 조정은 그들을 환영치 않으니 돌아오지 말라 기별하라.”(1회)

미군 측이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려가라고 조정에 통보했을 때, 당시 부평부사 이기조는 포로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미군의 권한이라고 말하면서 인수를 거절했다. 드라마는 증언과 기록이라는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신미양요를 그려냈다.

<미스터 선사인>은 1875년 운요호 사건도 다루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조선은 일본 수군의 상륙에 완전히 무너졌다. 병력 고작 열 네 명이었다”라는 내레이션을 나온다. 1875년 9월 20일 운요호의 일본군은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에 상륙한 후 살육행위를 저질렀다. 일본군은 단지 두 명이 부상했지만, 조선인 서른 다섯 명이 전사했고 열 여섯 명이 포로가 되었다. 화력 차이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1875년은 개연적 사건(이완익과 이토 히로부미를 만남), 허구적 사건(의병의 암살계획), 실제 사건(운요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요호 사건은 개연적 사건과 허구적 사건에 역사성을 부여한다.

<미스터 선사인> 2회에서는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과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등장한다. 미국은 스페인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얻게 되고,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신미양요 때 미국으로 간 유진 초이는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유진 초이와 카일 무어에게 조선으로 갈 것을 명령한다.

22회에서는 1907년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헤이그 밀사사건, <국민신보> 습격사건, 고종

퇴위, 군대 해산 등)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8월 1일 군대 해산을 둘러싸고 일본군과 대한제국 군대의 전투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투는 임진왜란 이후 서울에서 벌어진 외국 군대와와의 첫 전쟁이었다. 시위대(경운궁 경호부대) 대대장 박승환 참령이 자결을 하면서 대한제국 군대와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68명이 전사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마지막 회에서도 의병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의병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각시켰다. 증거 사진의 출처는 1907년 양평군의 의병들로 영국 《테일리메일》 아시아 특파원이었던 맥켄지가 찍은 것이었다. 드라마의 장소와 실제 장소는 다르지만 드라마의 시간은 1907년이기 때문에 의병의 역사적 사실성을 제시하는데 무리함이 없었다.



그림3. 1907년 양평 의병사진



그림4. <미스터 션샤인>의병장면

<미스터 션샤인>은 역사소환 전략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전경에 배열했다. 역사의 전경화 전략은 역사적 증거로서 역사재현과 특정 사건과 장소를 의미화하는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증언, 기록을 역사재현에 활용했으며, 강화도와 남대문은 외세침략의 위기에 빠진 조선의 환유이다.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미국 스페인 전쟁, 정미년 남대문 전투 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신미양요와 남대문 전투이다. 신미양요와 남대문 전투는 10분 이상 치열한 싸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으며, 증언과 역사기록을 충실히 따랐다. 역사적 사건의 재현은 시청자에게 드라마의 역사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드라마가 보여주는 상상의 역사 안으로 몰입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허구성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2회는 정미7적과 을사5적 등 친일파들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 오른 것은 정미7적, 을사5적, 친일파 후손 등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 회에 나온 맥켄지의 양평 의병사진 역시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미스터 션샤인>의 전경화 전략은 증거나 사실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신미양요의 상세한 묘사는 〈미스터 선사인〉을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등장인물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개연적 사건과 허구적 사건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1871년 신미양요는 강화도에 살았던 유진 초이 가족, 김희성 가족, 광성보 전투에서 호랑이 포수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장승구(장 포수)의 삶이 격변 속에 놓일 것을 보여주며, 1875년 윤요호 사건은 친일파의 등장, 일본의 침략과 무능한 조선, 의병활동 등과 같은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는 전경이 된다. 1907년 남대문 전투는 정미의병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더욱이 경운궁에서 경위원 총관 장승구가 일본 군대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신미양요와 남대문 전투는 병치되어 편집되었다. 장승구의 아버지가 신미양요 때 미군과 싸우다가 죽었던 것처럼, 장승구도 일군과 전투하다가 죽는다. 신미양요와 남대문 전투는 별개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드라마는 장승구를 통해서 같은 계열의 사건으로 위치한다.

4. 역사기표의 상상적 배치

〈미스터 선사인〉의 시점은 왜 1902년인가? 1902년 조선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표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전염병으로 7,000명이나 사망했고, 흉년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을미사변 이후 의병이 조직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커져갔다. 고종은 1898년 이후 권력주도권을 잡아서 주요 법률,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전보다 강하게 행사했다. 반면 일본은 청나라를 조선에서 추출한 후 경제를 장악할 목적으로 일본 제일은행 화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했고,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게다가 일본, 영국,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공동 대처하면서 러일 전쟁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라마는 1902년~1904년(1회~21회) 사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 근대사에서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였고, 1907년은 을사늑약 이후 폭풍 속에 위치했던 시점이었다.

〈미스터 선사인〉은 격동의 시기 역사기표들을 허구적 사건들과 상상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역사기표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떠도는 사건들이거나 (비)공식적인 역사기록들이다. 〈미스터 선사인〉에서 주요하게 활용된 역사기표들은 고종의 예치증서, 밀지, 제국익문사 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다. 신미양요, 윤요호 사건, 정미년 남대문 전투 등은 역사의 전경화로서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사실성을 부여한다면, 역사기표의 활용은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

면서 드라마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영역이다. 드라마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인 로맨스와 의병 활동은 이들 역사기표 속에서 전개된다.

고종의 예치증서와 관련된 사건들은 2회에서 9회까지 이야기의 중핵으로 등장한다. 이와 관련된 허구적 사건은 로건 테일러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 미군의 장총 탈취사건, 의병 활동 등이다. 유진 초이가 조선으로 공사대리로 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미 일본공사관에서 근무했던 로건 테일러를 암살하기 위해서였다. 로건 테일러는 외교 고문으로 조선에 있었는데 일본에 온갖 정보를 팔아 미국의 명예를 더럽힌 자였기 때문이다. 로건 테일러 암살 사건은 유진 초이와 고애신이 첫 만남의 계기였으며, 고종의 예치증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로건 테일러가 고종의 예치증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공사 하야시와 이완익은 구동매를 시켜, 조선조정 궁내부대신 이정문은 의병을 동원해서 예치증서를 찾고자 한다. 고종의 예치증서는 다양한 허구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드라마에서 고종의 예치증서는 의병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이었다고 가정한다.

이태진(2000)은 고종의 예치증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고종은 1903년 12월 2일 당시 일화(日貨) 150,000엔으로 평가된 금덩어리들을 중국 상해에 있는 독일계 덕화은행(德華銀行)에 예치했다. 이러한 예치금들은 고종의 밀사들을 위한 활동자금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고종은 강제 퇴위 당한 후에 1909년 10월 20일에 미국인 고문관 호머 헬버트를 시켜 이 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150,000엔은 1908년 4월 22일자로 이미 통감부 통감에게 지출되었다. 통감부가 궁내부대신 이윤용(이완용의 형)의 요청으로 이 돈을 인출한 것이다.⁶⁾ 고종의 예치증서와 관련된 자금은 1908년 통감부가 빼앗아 갔지만, 드라마는 이 자금이 중국에 있는 의병의 군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그려낸다.

예치증서와 함께 활용된 역사기표는 선교사 요셉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고종의 밀지다. 요셉이 지녔던 밀지는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려하기 때문에, 미국에 차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요셉은 이 밀지를 가지고 청나라로 떠나려다가 이완익의 사주를 받은 김용주에 의해서 죽는다. 이 사건도 드라마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사 요셉은 유진 초이의 미국 아버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유진 초이가 고종이 요청했던 대한제국 무관학교 교관을 거부했다가 다시 수락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다름없는 선교사 요셉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에 이완익이

6) 고종의 예치금 액수와 관련해서 1차 예치금 1903년 12월 150,000엔과 금괴 23개 포함 180,000엔, 2차 예치금 1904년 초 68,500엔으로 총 242,500엔(김동진, 2010, 344~346쪽)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금액은 1901년 대한제국 세입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산출하기 어렵지만 김동진(2010)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7억 2천 2백만 달러(약 2조원) 정도가 된다고 평가한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진 초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

고종이 밀사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게 밀지를 보낸 것은 대체로 1905년 이후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명기된 대한제국의 주권과 황실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철수하지 않았다.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밀사들을 서방제국에 보냈는데 미국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고종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담겨있는 1조 “일방이 제3국에 의해 강압적 대우를 받을 때 다른 일방은 중재를 한다”(居中調停)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고종이 밀사를 미국에 파견했지만 이 조항은 단지 무의미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을사늑약 이전에 이미 고종이 밀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일본의 지배를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묘사한다.

예치중서나 밀사파견 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직은 〈미스터 션샤인〉 후반부에 등장하는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다. 제국익문사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17회부터 모습을 드러내는데, 드라마 전반에 걸쳐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제국익문사는 역사학계 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조직이다. 이태진(2000)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897년 출범 이래 광무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1902년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6월 통신사를 가장한 황제 직속으로 국가정보기관으로 제국익문사가 설립되었다. 이태진은 제국익문사 활동요원의 칭호는 국내와 해외 주요 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통신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제국익문사의 비탐(秘探) 활동은 정부 고관들의 동정, 외국 공관원들의 동정, 국사법 및 외국인의 반국가적 행위,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침략행위 등이었다. 따라서 “제국익문사는 대한제국 황제정과 경제질서에 대한 일본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역정보 획득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태진, 2000, 391쪽)였다.⁷⁾ 제국익문사의 요원들은 통신원들이었는데 이중 해외통신원은 9명이었고 총 61명이었다. 조선 조정과 미국 선교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부(대표적으로 호머 할버트)가 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제국익문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논란이 있지만 작가는 제국익문사를 일본침략을 막기 위한 비밀조직으로 해석해서 드라마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다. 당시 조정은 국정사무를 맡은 의정부와 황실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로 구분되어 있었고, 1902년은 고종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내부의 역할을 강화시킨 때였다. 〈미스터 션샤인〉은 의정부를 친일파의 집단으로, 궁내부를 고종의 친위집단으로 설정했다.⁸⁾

7) 제국익문사와 관련해서 김재호(2005)는 항일정보기관이 아니라 관민의 동향을 감시하는 억압기구였다고 주장한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제국익문사를 비밀리 이끄는 사람은 궁내부대신 이정문이다. 궁내부 대신 이정문은 의병장이면서 도공인 황은산과 비밀리 연결되어 있다. 드라마는 의병활동의 한 축으로 제국익문사를 배경에 놓은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 고종이 전국 각지에 의병을 독려하는 서한 애통조(哀痛詔)도 궁내부 제국익문사에서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⁹⁾ 제국익문사의 성격과 관련해서 역사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1902년 고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내부를 확장하면서 일본의 국권침탈을 막으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국익문사의 역사기표를 드라마에서 의병활동과 연계시켜 서사를 구성한 것은 새로운 해석이면서도 인물들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상상적 배치이다.

5. 인물의 소환방식

역사적 사건의 계열들은 서로 만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정미년 남대문 전투의 계열은 역사의 시간 내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제국의 조선침략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계열에 속하지만, 세 사건은 서로 별개로 발생한 것이다. 역사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의 계열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인물들을 통해서이다. 사건의 진정한 행위자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 — 허구적 인물, 개연적 인물, 실존 인물 — 을 적절하게 설정한다.

신미양요와 운요호 사건은 허구적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전경이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중요한 허구적 인물들로 유진 초이, 고애신, 김희성, 구동매, 장승구 등을 들 수 있다. 허구적 인물들은 드라마의 중심에서 있다. 고애신을 제외하면 허구적 인물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다면적 성격을 지닌다. 유진 초이는 “조선은 내 부모를 죽인 나라였고, 내가 도망쳐 온 나라였소. 그래서 모질게 조선을 밟고 내 조국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소.”(9회), “미국은 나를 조선인이라고 하고, 조선은 나를 미국인이라고 하니”(15회) 등과 같이 조선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유진 초이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간 요셉을 아버지로 생각한다.

조선 최고 부자의 아들인 김희성은 조부의 폭력과 부정, 아버지의 비굴함으로 한량으로 살

8) 드라마에서는 조선조정을 두 패로 구분해서 묘사한다. 원편에는 의정부 관료들인데 이들은 양복을 입고 있는 반면, 오른편에 있는 궁내부 관료들은 한복을 입고 있다.

9) 한국학자료센터에서 보면 고종이 애통조를 처음 각지에 보낸 때는 1896년이였다.

지만, 부끄러움과 죄의식 속에서 방황한다. 그는 목적없는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조선의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신문 호위를 발행해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구동매는 백정의 아들이라는 신분차별과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서 무신회에 가입한 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위치한다. 구동매는 자신의 어머니가 겁탈당하는 상황에서도 무기력하게 고기만 다듬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일본 무신회 오야봉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긴다. 포수 장승구는 어린 시절 신미양요를 경험하면서 백성을 구하지 않았던 조선 조정에 대한 분노로 역적이 되고자 하지만, 고애신의 스승이 되고 고종을 지키는 경위원 총관을 지내다가 정미년 경운궁 전투에서 죽는다.

유진 초이와 구동매는 동일한 계열의 인물들이다. 노비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차별을 받고, 나라에서 버림받은 인물이면서 고애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노비였던 유진 초이의 어머니는 자식을 구하고 우물에 빠져 죽고, 백정이었던 구동매의 어머니도 자신을 겁탈한 남자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두 사람에게 어머니는 성폭력의 희생자이면서 이들이 조선을 떠나 차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한 두 사람은 실제 아버지를 포기하고, 타국의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오야봉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조선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조선의 아버지는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은 국가 가부장의 몰락과도 관계된다.

고애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애기씨’면서 의병인 매력적인 인물이다.¹⁰⁾ 고애신은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기도 되는 사대부 여인의 삶과 달리, 불꽃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며 계급(명문 사대부)의 굴레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고애신은 〈미스터 선사인〉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주체적이다. 남성 인물들에게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사대부의 철없는 영애지만, 속으로는 남장-여자의 모습으로 민족의식이 강한 인물이다. 기록의 한계로 여성인물의 역할은 역사드라마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고애신은 공식역사에서 배제된 여성의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스터 선사인〉의 개연적 인물은 이완익, 요셉, 쿠도 히나 등인데 허구적 인물들과 달리 대체로 단면적 성격을 지닌다. 개연적 인물은 완전히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삼거나 변용시킨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다. 드라마에서 이완익은 신미양요 때 통역을 맡은 중인이었지만, 미국보다는 일본에 붙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일파가 되어 1875년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다. 주일공사로 있다가 1902년에 조선으로 돌아와 농상공부대신을 거쳐 외무대신이 되었다

10) 고애신은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에서 새롭게 창조된 여성 인물의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여성 정체성을 숨기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성장하는 〈선덕여왕〉의 덕만처럼 남장을 하면서 의병활동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뿌리 깊은 나무〉의 소이나(육룡이 나르샤)의 분이와 같이 남성인물과 대등한 위치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가 1904년 고애신에게 죽는다.¹¹⁾ 자신의 딸 쿠도 히나를 재산이 많은 늙은 일본인에게 시집을 보낼 정도로 철저히 이기적인 인물이다. 이완익이 당대 누구를 모델로 형성화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을사3흉인 이하영과 을사5적인 이완용을 혼합한 인물인 듯하다.¹²⁾

선교사 요셉은 드라마 초반과 중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요셉이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의 밀사로 파견했던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정도가 아닐까 싶다.¹³⁾ 요셉은 신미양요 때 도공 황은산의 가마터에서 유진 초이를 미국으로 데려간 인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요셉은 다시 조선으로 와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미국에 차관을 요청하는 고종의 밀지를 갖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다. 작가가 호머 헐버트를 모델로 요셉을 만들어냈는지 불분명하지만(실제로 고종은 호머 헐버트를 밀사로 파견했다), 당시 고종이 미국을 신임했고 선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조선 왕실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준 이유는 미국이 조선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종이 미국 선교사를 상당히 신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선교사를 밀사로 보낸다는 것은 무리한 상상력이 아니다.

이밖에도 쿠도 히나는 이완익의 딸로 허구적 인물이지만, 그녀가 글로리 호텔의 사장이라는 설정은 1902년 손탁 호텔¹⁴⁾의 사장이었던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Sontag)을 모델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쿠도 히나는 손탁 호텔을 글로리 호텔로 설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대한제국 비밀조직원 제국익문사 요원으로 활동한다. 작가는 글로리 호텔을 단순히 호텔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제국익문사의 비밀거처로 설정했다.

11)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이완익은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완익은 1871년 신미양요 때 통역을 맡은 중인으로 등장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1882년 조시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통역은 마젠중(청나라 통역관)이 맡았고, 1887년 박정양이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갔을 때에도 한영 통역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12) 이하영은 부산 초량(동래)에서 태어난 몰락한 양반출신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통도사 등자승으로 있었으며,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어를 배웠다. 한성에서 알렌을 만나서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영어를 배웠다. 1887년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을 수행하며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3번에 걸쳐 주일공사를 맡았다. 1904년 위무대신이 되었다가 을사늑약 때는 법무대신이였다. 이하영은 일어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신에 오른 인물이다. 이완용 역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랐으며 주일공사와 위무대신을 거친 대표적인 친일파이고, 이완익의 이름은 이완용에서 빌려온 듯하다. 물론 드라마에서 이완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완익과 이완용은 별개의 인물이다.

13) 호머 헐버트는 근대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1886년 조선에 왔다가 1891년 미국에 돌아간 후, 1893년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내한하여 근대교육의 초석을 놓았다. 1905년 고종 특사로 미국을 방문, 을사늑약을 지지코자 했고, 1906년 헤이그 특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14) 손탁 호텔은 고종이 이관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 공사관 웨벨의 처형이었던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의 도움을 받은 후 1897년 정동 29번지에 양관(洋館)을 지어 하사한 것이다. 손탁 호텔은 1902년 2층 벽돌 건물로 확장하여 당시 외국인 과 조선 상류층에게 서양요리, 커피 등을 파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박재영, 2002, 46~52쪽).

실존 인물은 역사의 전경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고종을 제외하면 비중이 낮은 편이다. 실존 인물로는 고종, 대원군, 알렌 공사, 하야시 공사, 시어도어 루스벨트, 안창호, 이완용, 송병준, 을사5적과 정미7적 등이 나온다.¹⁵⁾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의 해석은 고종과 알렌 공사이다. 〈미스터 선사인〉에서 고종은 나약하거나 무능한 군주가 아니다. 고종은 고뇌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애처로움과 근엄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인물이다. 일본군 츠다 하사에 대한 판결, 친일파 이세훈이 모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고종은 단호하게 처형을 명령한다.

영국과 일본 공사는 공식 중인 외무대신으로 이완익을 추천하지만, 고종은 그를 농상공부 대신으로 임명하고(9회), 일본과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서 무관학교를 재정비하며(10회), 자신의 내탕금(비밀자금)을 상해로 보내 의병 군자금으로 쓰게 하고, 밀사를 파견하기도 한다(14회).

역사학계 내에서 고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나는 대원군과 명성왕후의 세력 내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근대적 권력인식(왕권과 국권의 혼돈)에 빠져 망국으로 이끈 무능한 왕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고종은 개화와 부국강병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주적 외교 활동을 통해서 열강으로부터 자주성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민과 국이 나라의 주체라는 민국사상, 국기 사용, ‘대한’의 명칭 사용 등에서 고종의 자주적이며 개혁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미스터 선사인〉은 고종의 양면을 다룬다. 고종은 제국의 영향력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자주적인 인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과 마찬가지로 알렌 공사도 개연성 있게 묘사된다. 선교사로서 조선에 온 알렌은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치료함으로써 고종의 신임을 얻었다. 알렌은 광혜원 의사로 근무하기도 했지만 1895년 운산금광 채굴권을 무상으로 하사받아 거액의 구전을 받고 미국인 사업가 모스에게 넘겼다. “고종은 금광 이권을 미국인에게 주면 미국이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알렌의 기만에 속아 넘어갔으며, 이때 체결된 계약은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사기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주진오, 1988, 79쪽). 알렌은 전차가설권, 전기사업에 관계되는 이권과 수도공사권까지 챙겨갔다.

알렌은 이해관계와 뇌물을 밝히는 이중적 인물로 묘사된다. 알렌은 미공사관 영사대리인 유진 초이를 공격한 조선인을 풀어달라는 하야시 공사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거액의 뇌

15) 고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배경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부분 간략하게 묘사된다.

16) 2004년 역사학계에서 고종에 대한 재평가 논쟁이 불붙었다. 이것은 ‘내제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으로 고종이 개혁기 자주적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으며 민국정치 이념을 갖고 있었고 근대화정책(광무개혁)을 추진한 계몽군주라는 이태진의 주장과 이에 대한 김재호의 반론과 재반론으로 이어졌다. 이 논쟁과 관련해서 《고종시대의 재조명》(2000)과 《고종황제 역사청문회》(2005)를 참고할 것.

물을 받고 풀어준다. 알렌은 선교사와 의사로 조선에 왔지만, 철저한 제국주의 외교관이었던 점에서 알렌의 이중성에 대한 묘사는 설득력을 지닌다.

〈미스터 선사인〉은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상상력을 만들어간다. 허구적 인물들은 드라마의 핵심으로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라면, 실존 인물은 고종과 알렌 공사처럼 작가의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그려지며, 개인적 인물들은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6. 시공간의 압축 배열

〈미스터 선사인〉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적으로 배열한다. 드라마의 시간은 1901년 11월 12일, 1871년 6월 10일, 1875년, 1894년, 1898년, 1901년 11월 12일, 1902년, 1904년, 1907년이다. 마지막 회에서 1909년과 1919년이 나오지만 클로징 시퀀스였다. 1919년은 의병운동을 3.1 운동과 연계한 것이다. 드라마의 시작 시점은 1902년이고, 용암포 사건이 간략하게 언급되는 12회부터 1903년이 되며, 한일의정서와 러일전쟁이 나오는 20회부터는 1904년이고, 헤이그 밀사 사건과 군대해산이 나오는 22회부터는 1907년이다. 사실상 드라마의 시간은 1902~1904년과 1907년이다.

대부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간략한 대사로 요약되어 있다. “한 나라의 황후가 시해 당했습니다. 나랏님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을 쳐 이 나라 저 나라 황제들에게 클로 손을 벌립니다. 그 덕에 서양 제국들이 줄지어 간섭합니다. 글은 힘이 없습니다.”(2회), “작금의 조선이 어떤지 아느냐! 작금의 조선엔 조선의 것이 없다. 아라사(러시아)는 압록강, 두만강에 산림에, 경원광산, 경성광산을 수탈해갔다. 미국은 운산광산에 수도, 전차, 증기, 경인선을”(9회) 등과 같다. 명성황후 시해, 아관파천 등과 같은 치욕적 사건들은 배제되어 있다. 1905년 을사늑약과 같은 굴욕적 사건도 생략되어 있다.

〈미스터 선사인〉의 시간은 1902년 경이지만, 드라마는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풍속을 폭넓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종은 글로리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쿠도 히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까지 오셨는데 가배 한잔 하고 가셔야지요. 창가가 싫으시면 벽 쪽 소파로 모실까요? 조선에 모든 권력은 사내들에게 있으나 그 사내들은 언제나 글로리에 있답니다. 조선의 모던 보이, 덴

디 보이, 룬펜, 조선의 보이란 보이들은 죄다 글로리에 몰려 들지요.”(4회)

고종은 1896년 아관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처음 맛보았다. 고종은 손탁의 권유로 커피를 접했고, 순종과 함께 커피를 즐겼다.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가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당시 가배는 서양문물과 분위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모던 걸, 모던 보이는 기자와 히데카즈(北澤秀一)가 일본의 《여성》지에 1924년 처음 언급한 것으로 1926년부터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김경일, 2004, 24쪽). 조선의 경우, 박영희가 《별건곤》(1927년 12월호)에서 모던 걸, 모던 보이 용어를 들은 것이 반년 남짓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모던 걸 모던 보이는 일본에서 1926년 대중적으로 사용되다가 1927년 조선에서 유행어가 되었다(주창윤, 2015, 30~31쪽). 쿠도 히나가 말하는 모던 보이, 댄디 보이나 룬펜은 1902년에는 없던 용어이다. 여기서 쿠도 히나의 대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 선샤인>은 대한제국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까지 폭넓게 풍속이나 유행을 끌어들이어 근대로 변해가는 격동의 시대를 풍성하게 그려낸다.

의병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애신의 부모는 스스로 의병이라 칭하는데, 이때는 1875년이다. 실제 의병의 출현보다는 20년 정도 앞선 시기였다. 구한말 의병이 1894년 일본의 경복궁 점령으로부터 시작해서 1895년 을미사변으로 본격화되었다. 의적을 자처했던 활빈당은 1886년경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활동했다. 활빈당이 의적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것은 1900년대 들어와서부터이다(배향섭, 1992). 비록 대규모 조직적인 의병은 1890년대 이후 등장했지만, 작가는 조선이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1870년대 작은 조직으로서 의병활동이 있었으리라 상상한다.

미군의 주둔도 새롭게 만들어진 사건이다. 고종은 “미국의 군대주둔을 윤희”(3회)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드라마 전개상 미군이 조선에 주둔하지 않으면 미해병대 대위인 유진 초이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군의 주둔은 역사적 사실과 관계 없다는 점에서 외적(역사적) 개연성은 없지만, 드라마의 시각에서 보면 유진 초이의 귀국과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적(드라마의) 일관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다.

시공간의 압축은 드라마의 극적 장면을 연출할 때도 적절히 활용된다. 유진 초이와 고애신이 로건 테일러를 암살하는 시점은 종로 가로등 점등식이 있는 날이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면서 1899년 서대문-청량리 구간의 전차가 첫 개통되고, 1900년 4월 종로에 가로등 3개를 점등하면서 한성의 모습은 바뀌었다(이태진, 2000, 377쪽). 유진 초이와 고애신의 첫 만남과 암살을 종로 가로등 점등식이 있는 날로 설정함으로써 드라마의 분위기는 증폭된다.



그림 5. 종로 2가 세트장



그림 6. 진고개 세트장

〈미스터 션사인〉에서 나오는 한성의 공간은 종로 2가, 홍교, 진고개, 미국공사관, 글로리 호텔 등이다. 역사드라마에서 대형 오픈 세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장소들은 역사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풍속이나 생활사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드라마의 역사적 사실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904년 로제티가 찍은 종로 2가 사진과 비교해보면, 세트 도로의 폭은 좁지만 분위기는 유사해 보인다. 반면 진고개를 배경으로 할 때 오가는 사람들의 의상이나 음식점, 양복점, 제과점의 풍경, 카스테라나 꽃빙수를 먹는 것 등은 1920~1930년대 모습에 가깝다.

〈미스터 션사인〉의 시기는 1902~1907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소환하는데 있어서 187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풍물, 유행, 역사적 사건 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미스터 션사인〉은 역사적 사실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배경화라고 볼 수 있다. 역사의 배경화는 미시적 관점에서 당대 역사의 분위기, 풍속, 풍물 등을 드라마의 역사공간 안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역사와 허구를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한다.

7. 격변의 시기, 낭만적 사랑의 좌절

〈미스터 션사인〉은 격변의 시기를 배경으로 낭만적 사랑의 좌절을 그려낸다. 역사의 전경화는 격변의 상황을 보여주고, 고애신의 내레이션으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1회)고

언급한다. 전경화 전략은 역사변동을 그려내지만 직접적으로 낭만적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의 전경화는 사랑을 좌절시키거나 지체시키는 맥락으로 활용된다.

〈미스터 션사인〉의 낭만적 사랑은 고애신을 둘러싼 세 인물을 통해서 그려지는데, 이들의 운명적 만남은 3회부터 등장한다. 고애신과 유진 초이의 사랑은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시작된다. 고애신은 유진 초이에게 낭만이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고백한다.

신문에서 작금을 낭만의 시대라고 하더이다. 그럴지도. 개화한 이들이 즐긴다는 가배, 불란서 양장, 각국의 박래품들. . . 나 역시 다르지 않소. 단지 내 낭만은 독일제 총구 안에 있을 뿐이오. 혹시 아오? 내가 그 날 밤 귀하한테 들킨 게 내 낭만이었을지도(3회).

1902년을 낭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미스터 션사인〉의 배경화 전략에서 보듯, 1930년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설정은 아니다. 고애신은 유진 초이와의 만남이 우연적 운명이었음을 말한다. 두 사람이 주미 일본공사관 로건 테일러의 암살과정에서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구동매가 고애신을 처음 만난 것도 운명이었다. 3회 회상장면에서 구동매 어머니가 자신을 겁탈한 남자를 죽이자 구동매는 도망가다가 고애신의 도움으로 가마에 함께 타면서 운명적으로 만난다.

에바 일루즈(Illouz)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위반의 유토피아’(Illouz, 2014)다. 낭만적 사랑은 ‘열정’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선언하면서, 족내혼, 계급, 종교적 성스러움, 복종, 권위 등과 같은 전통가치를 무너뜨리고 유토피아적인 개인의 주권을 신성화하기 때문이다. 고애신을 둘러싼 유진 초이, 구동매, 김희성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의 특징을 보여준다. 역제할 수 없는 열정, 운명적 만남, 계급이나 제도의 위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사람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 내에서 서로 다른 층위로 그려진다.

명문 사대부의 딸인 고애신과 노비 출신 유진 초이의 사랑은 계급관계를 넘어선다. 고애신이 유진 초이가 노비의 아들인 것을 알고 놀랐을 때, 유진 초이는 고애신에게 “무엇 때문에 놀란 거요? 맞소. 조선에서 난 노비였소. . . 한 여인을 만났고 자주 흔들렸소.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시는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9회)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의 신분차이는 잠시 사랑을 지체시키지만, 고애신은 유진 초이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고애신이 유진 초이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의병활동의 대의를 유진 초이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고애신과 유진 초이의 사랑은 민족을 매개로 하는 ‘동지적 사랑’이다. 고애신과 유진 초이는 동지적 친밀감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길을 가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구동매의 사랑은 이상화와 헌신을 통한 ‘절대적 사랑’이다. <미스터 션사인> 1회에서 1894년 갑오개혁에 관한 방(榜)이 붙어서 노비제가 폐지된다는 전경이 등장하지만, 구동매에게 고애신은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상화의 존재다. 구동매는 무신회의 한성지부장으로 진고개에서 못된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고애신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다. 구동매는 고애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표현하는 성적 욕망은 단지 치맛자락을 한번 잡는 것 뿐이었다. 고애신은 이상화된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동매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지 못한다. 구동매는 고애신이 자신과 사랑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구동매는 자신이 백정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일본을 위한 무신회를 이끌고 있다는 현실적 위치 때문이지만, 동시에 고애신은 다가갈 수 없는 ‘이상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동매는 고애신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화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열정의 극단을 보여준다.

구동매의 사랑은 상대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아가페다. 구동매는 고애신 앞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낀다. 시청자에게 가장 매혹적인 사랑의 인물은 구동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구동매는 단지 고애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통제의 상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동매는 사랑의 역설적 구조(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 기대와 좌절 등)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구동매의 사랑은 유진 초이나 김희성의 사랑에 비해서 열정이 강하게 표현된다. 사랑의 열정은 “본래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겪는 정신 상태를 뜻한다. 열정이라는 감정은 수동적이지만 열정이 발현되는 행위는 능동적이다”(Luhmann, 2009, 96쪽). 구동매는 사랑의 열정이 갖는 감정의 수동성(그의 카리스마는 강하지만 고애신 앞에서는 나약하다는 점)과 행위의 능동성(고애신을 위해서 무한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것이 구동매의 사랑이 갖는 흡입력이다.

반면, 고애신과 김희성 사이 신분차이는 없다. 두 사람의 부모는 어린 시절 정혼을 약속했다. 이들의 혼인약속은 부모들 사이에서 벌어진 현실적 거래였을 것이다. 사대부에게 정혼은 부모들이 권력과 재산을 바탕으로 맺는 거래적 관계다.¹⁷⁾ 김희성은 고애신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맺어준 정혼을 깨는 이유는 고애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가는 길을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희성은 고애신과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랑을 지체시킨다. 이런 측면에

17) 그러나 <미스터 션사인>에서 정혼의 이유인 정략적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고애신의 조부인 고사홍의 인품으로 보면, 부패한 권력인 김희성 집안과 정혼을 약속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고사홍이 김희성을 만나 결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손녀가 대외보다는 개인적 행복추구를 기대했던 것 같다.

서 보면 고애신에 대한 김희성의 사랑은 ‘배려적 사랑’이다.

그러나 고애신의 입장에서 보면, 구동매와 김희성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다. 고애신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둬으로써 상호관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고애신이 사랑한 사람은 유진 초이다. 고애신과 유진 초이의 사랑은 드라마 중경화 전략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로건 테일러의 암살, 미군 총 탈취 사건, 고종의 예치증서를 둘러싼 갈등, 제국익문사와 의병의 관계 등)과 관련됨으로써 사랑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낭만적 사랑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족이 낭만적 사랑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고애신은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민족을 선택했다. 따라서 구동매의 절대적 사랑은 좌절될 수밖에 없고, 김희성의 배려적 사랑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유진 초이의 동지적 사랑도 민족의 대의 앞에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8. 결론

대부분 역사드라마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토대로 구성되지만, 〈미스터 선사인〉은 허구적 인물을 가지고 역사적 개연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독특하다.

〈미스터 선사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소환한다. 우선, ‘역사의 전경화’(前景化)이다. 이것은 시공간의 기둥으로서 기능한다. 시청자로 하여금 역사의 맥락을 설정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스터 선사인〉에서 역사의 전경화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양호 사건 그리고 1907년 남대문 전투이다. 드라마는 이 사건들을 상상력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묘사함으로써 상상과 허구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성을 갖게 만든다. 동시에 역사의 전경화 전략은 상상적 사건과 허구적 사건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즉 증거로서 역사를 재현하고 장소를 사실화하는 것이다.

〈미스터 선사인〉은 전경화를 바탕으로 ‘역사의 중경화’(中景化) 전략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역사기표들 중에서 선택 가능하는 것을 선별해서 드라마의 외적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고종의 예치증서, 밀지, 제국익문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 (국가와 계급에 의해서) 버려진 무명의 존재들이 민족의식을 갖고 의병으로 활동하는 과정과 낭만적 사랑이 발전할 수 있는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기표를 바탕으로 허구적 사건들을 다양하게 배열하고, 허구, 실존, 개연적 인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드라마의 내적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시공간을 압축적으로 구성하거나 재배열했다. 드라마가 전개되는 역사적 시간은 1902~1907년 사이지만, 이 시기의 풍물, 유행, 문화 등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대체로 보면 187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역사의 배경화'(背景化) 전략은 드라마의 내적 재미나 흥밋거리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품들을 밀도 있게 깔아 놓은 것이다. 이것들은 드라마의 서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서사 뒤에서 보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사드라마에서 당대를 재현하는 세트나 미장센도 배경화 전략에서 중요하게 기능한다.

역사드라마의 소환방식과 관련해서 제시한 전경화, 중경화, 배경화 전략은 〈미스터 션샤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사드라마의 소환전략으로 보편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역사드라마 첫 회에서 나오는 전쟁장면은 자주 활용되는 전경화 전략이다. 전쟁장면은 박진감과 스펙터클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역사드라마는 첫 회에 서사의 시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산〉은 1762년 영조 38년 5월 19일 사도세자가 죽기 전날이거나 〈동이〉는 1681년 숙종 7년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심각한 시기이다. 이들 드라마의 전경화 전략은 간략한 맥락의 제시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스펙터클과 더불어 당시 전투를 기록에 기초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역사적 환기력도 높였다. 시청자를 실제 역사 안으로 끌고 오는 역사효과를 만들어냈다.

중경화 전략은 역사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입한다. 대체적으로 역사드라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중경화 전략을 사용해왔다. 하나는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중핵이 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가 꾸며낸 중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미스터 션샤인〉은 비공식 사건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배치시키면서 허구적 사건들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배경화 전략은 〈허준〉이나 〈대장금〉 등과 같은 드라마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허준〉의 경우 한약방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실제 한약재, 내의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대장금〉에서 수라간 궁녀들과 음식, 내의원 의녀의 생활 등은 서사의 사실성을 부여하는 보조 장치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시공간의 압축적 배열과 다양한 풍속을 통해서 배경의 밀도를 높였다.

〈미스터 션샤인〉은 전경화, 중경화, 배경화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세 전략을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 중심서사(로맨스와 무명의 의병활동)는 허구적 인물, 개연적 인물,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짜임새있게 배치했다. 이것은 시청자에게 역사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몰입시키는 요인이었다.

참고문헌

- 강준만·오두진 (2005).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커피와 다방의 사회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공임순 (2000).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서울: 책세상.
- 김경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서울: 푸른역사.
- 김동진 (2010). <파란 눈의 한국혼 힐버트>. 참좋은친구.
- 김용만 (2007).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 <연개소문>. <고구려 발해연구>, 28권, 49-72.
- 박재영 (2012). 한말 서양문물의 수용과 독일인. <독일연구>, 23호, 31-72.
- 배항섭 (1992). 활빈당-의적에서 의병으로. <역사비평>, (1992.5), 343-347.
- 서길수 (2007).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 <주몽>. <고구려 발해연구>, 28권, 9-48.
- 신호승 (2014). 1871년 미군의 강화도 침공과 전환분석. <역사와 경계>, 93호, 3164.
- 왕현종 (2010).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논리. <역사학보>, 208호, 1-34.
- 윤석진 (2014). 2000년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지형도,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연구회 편). 소명출판.
- 이덕일 (2001, 9, 25). 픽션과 사실 사이 <여인천하>의 한 단면. <중앙일보>.
- 이병훈 (2000).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한국방송비평회 프로그램 비평토론킴.
- 이진욱 (2018, 7, 11). <미스터 션샤인> 보는 역사학자 “안타깝다”.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4998610>.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과주: 태학사.
- 이태진·구대열·김도형·주진오 (1997). 대한제국 100주년 좌담: 고종과 대한제국을 둘러싼 최근 논쟁, 보수회귀인가 역사적 전진인가. <역사비평>, (1997.5), 224-270.
- 이태진·김재호 외 (2005).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서울: 푸른역사.
- 주진오 (1988). 미국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 친미파. <역사비평>, (1988.12), 64-86.
- 주창윤 (2005).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미학·해독>. 문경출판.
- 주창윤 (2015). <한국현대문화의 형성>. 과주: 나남출판.
- 최인진 (1999). <한국사진사 1631~1945>. 서울: 눈빛.
- 최형익 (2018, 8, 21). ‘미스터 션샤인’과 구한말 한미관계왜곡. <한겨레>. A25면.
- 텔레비전드라마연구회 (2014).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 서울: 소명출판.
- 하원호 (2015). 망국의 리더십, 고종의 리더십. <내일을 여는 역사>, (2015.3), 179-190.

- Grindon, L. (1994), *Shadows on the Past: Studies in the Historical Fil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Groot, J. (2009). *Consuming History: Historians and Heritage i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이윤정 (역) (2014). <역사를 소비하다: 역사와 대중문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 Illouz, E. (1997).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박형신·권오현 (역) (2014).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서울: 이학사.
- Luhmann, L. (1982), *Liebe als Passion: Zur Codierung von Intimität*.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2009).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서울: 새물결.
- Rosenstone, R. (1995), *Visions of the Past: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w, H. E. (1983), *The Forms of Historical Fictions: Sir Walter Scott and his Successo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일 2018년 10월 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월 30일

Abstract

Calling and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facts on <Mr. Sunshine>

Joo, Chang Yun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Media, Seoul Women's University

It is one of quite interesting point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a historical drama author selects and composes specific events from historical facts, and makes up fictive stories. This means that calling and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facts is an essential factor in the analysis of historical drama.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imaginative strategies on the historical drama, <Mr. Sunshine>(2018, tvN). <Mr. Sunshine> uses the strategy of 'history foreground', which represents historical evidences and signifies the specific place. 'Shinmeeyanggye'(Invasion of Korea by the three U.S. warships in 1871) is vividly portray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photographies and testimony. The strategy of historical background contributes the audience to enter into imaginative history. Secondly, the strategy of history middle-ground is to fill the gap between external probability(historical facts) and internal probability(story telling), inviting Kojong(a king of Chosun Dynasty)'s depository receipt, secret orders and the secret organization. Thirdly, the strategy of history background is to rearrange and compress historical time and space. Though <Mr. Sunshine> depicts historical facts from 1902 to 1904, it shows fashion, culture, scenery and customs from 1870s to 1930s.

Keywords: Historical drama, Calling historical facts, <Mr. Sunshine>, History foreground, History background